

나르시시즘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외도 의도: 개인 × 상황 상호작용적인 접근

김 세 현 허 용 회 박 선 응[†]

고려대학교

본 연구는 낭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외도 의도를 예측하는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확인하고,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기혼 남녀 116명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을 측정하고, 결혼 생활 중 우연하게 발생한 외도 기회를 묘사한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외도 의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더 높은 외도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더 많은 외도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 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나르시시즘은 성별의 효과와는 독립적으로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쳤다. 연구 2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한 상황적 특성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상황적 특성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낭만적 관계 중에 있지 않은 남자 대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을 측정한 뒤, 투자 모델 내 요인(투자 정도, 대안의 질)에 의거하여 조작된 시나리오를 통해 외도 의도를 측정하였다. 먼저 외도 의도는 조작된 상황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정도가 낮거나 대안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 외도 의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나르시시즘은 현재 낭만적 관계에 대한 투자 정도와 대안으로 다가온 외도 대상의 가치가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경우에만 외도 의도와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는 나르시시즘이라는 성격적 특성과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높고 낮음이라는 상황적 특성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각각 확인하였으며, 나아가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외도 의도를 예측함을 밝혔다. 이를 통해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라는 심리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성격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외도 의도, 나르시시즘, 투자 모델, 개인 × 상황 상호작용

[†] 교신저자: 박선응,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Tel: 02-3290-2868, E-mail: sunwpark@korea.ac.kr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성적 혹은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교감을 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Lampard(2014)는 외도가 낭만적 관계에서 이별의 주된 이유임을 보고했으며, 최근 이루어진 국내 설문 결과에서도 외도는 낭만적 관계의 종결을 불러오는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혔다(동아일보, 2016). 또한 외도는 심리적 고통을 불러오거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ung et al., 2002; Rhoades, Kamp Dush, Atkins, Stanley, & Markman, 2011).

그럼에도 낭만적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외도, 즉 다른 사람과 성적 혹은 정서적으로 부적절하게 교감하는 일은 빈번하게 나타난다. 국내 포털 사이트에서 외도, 불륜, 간통 등의 검색어로 검색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고민하고, 고통 받고 있음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Drigotas와 Barta(2001)는 낭만적 관계 중인 참여자들 중 25% 이상이 외도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다. 게다가 최근에는 외도 대상을 몰색하고, 외도 경험을 공유하고, 외도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은 일도 있었다(국민일보, 2014). 즉, 외도는 낭만적 관계를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사람들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생각 이상으로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외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도 의도에 대한 심리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낭만적 관계에서의 외도 의도에 대한 개인적 특성(나르시시즘)과 상황적 특성(투자 정도, 대안의 질)의 영향력, 나아가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외도의 정의와 예측 변인

외도에 대한 연구는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지만, 외도에 대한 범문화적 차원의 조작적 정의는 최근까지도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Blow & Hartnett, 2005; Thornton & Nagurney, 2011). 일반적으로 외도를 성적 외도와 정서적 외도로 구분하기는 하지만, Moller와 Vossler(2015)는 외도가 다른 사람과의 성적, 정서적 교감을 함께 고려해야하는 복합적인 개념이라고 지적했다. 외도의 정의가 불명확한 이유는, 성적 외도는 비교적 명확한 개념인 반면 정서적 외도는 상대적으로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이다(Guitar et al., 2016). 게다가 성적 혹은 정서적 외도는 동일한 행동일지라도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Moller & Vossler, 2015). 하지만 외도가 현재 낭만적 파트너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으로부터 시작됨은 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외도 의도를 살펴보았다.

Atkins, Baucom과 Jacobson(2001)은 성별, 나이, 초혼 나이, 종교 활동, 수입, 결혼 만족도 등의 다양한 변인들이 외도와 관계가 있음을 밝혔는데, 그 중 특히 결혼 만족도와 외도 가능성 사이에 강한 부적 관계가 나타났다. Shackelford, Besser와 Goetz(2008)는 개인의 성격과 함께 결혼 만족도가 외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파트너의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과 외도 간의 부적 관계를 결혼 만족도가 매개한다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는데, 성한기와 손영화(2007)는 결혼 만족도가 낮은 기혼 여성들이 높은 혼외관계 의도를 나타내며, 높은 혼외관계 의도는 이혼 의도와 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했다.

Buss와 Shackelford(1997)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부부의 성격 특성, 결혼 만족도, 전문가가 평가한 부부 관계가 끝날 가능성 등의 다양한 변인들과 외도 행동 가능성(희롱, 키스, 데이트, 하룻밤의 섹스, 가벼운 불륜, 심각한 불륜)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가 평가하기에 부부 관계가 끝날 가능성이 높은 남성들은 희롱을 제외한 외도 행동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평가한 부부 관계가 끝날 가능성과 외도 행동 가능성을 지각하는 정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남녀 공통적으로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외도 행동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성들은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모든 외도 행동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했으며, 남성에게서는 나르시시즘과 회롱, 키스, 가벼운 불륜 간의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게다가 앞서 언급한 연구들(성한기, 손영화, 2007; Atkins et al, 2001; Shackelford et al., 2008)과 마찬가지로, 외도 행동 가능성은 결혼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Drigotas, Safstrom과 Gentilia(1999)는 낭만적 관계 중에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관계 헌신과 외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 관계에 대한 헌신 정도와 외도 사이에 부적 관계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수집된 중단 자료를 통해 관계에 대한 현재의 헌신 정도가 미래의 외도와도 유의미한 부적 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성별도 외도를 예측하는 하나의 변인이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외도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도 직관적이며, 실제 연구를 통해서도 밝혀졌다. Atkins 등(2001)의 연구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외도 가능성을 지각하였다. 다만 성별과 나이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었는데, 남성과 여성이 나이에 따라 각각 외도 가능성을 다르게 지각하였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에는 60대에서 외도 가능성의 지각 정도가 정점인 반면, 여성의 경우는 40대에 외도 가능성을 가장 높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전 연령에 걸쳐, 남성이 여성에 비해 외도 가능성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도 의도에서의 성차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성적 욕구가 높으며(Baumeister, Catanese, & Vohs, 2001), 더 많은 성적 파트너를 원한다(Schmitt, 2003)는 연구 결과와도 동일한 맥락에 있다.

나르시시즘과 낭만적 관계

나르시시즘은 웅대한 자기상, 스스로에 대한 특권 인식, 타인에 대한 착취, 타인에 대해 공감하지 않으려는 태도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고취시키거나, 그러한 자기상을 유지하고자 타인을 폄하하고 착취하는 것에 익숙하다(Bushman & Baumeister, 1998; Park & Colvin, 2015). 또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매력적인 겉모습을 과시하기 위해 옷차림이나 외모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한정민, 조민수, 홍세은, 박선웅, 2016; Back, Schmukle, & Egloff, 2010; Dufner, Rauthmann, Czarna, & Denissen, 2013).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과 낭만적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독특한 일면들을 나타낸다. 나르시시즘이 높은 이들은 자신의 연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외모나 재력, 사회경제적 배경 등을 갖춘 이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Campbell, 1999; Campbell & Foster, 2002). Campbell(1999)에 의하면, 나르시시즘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배려심이 깊고 친절한 이성에 대한 매력도는 낮게 지각하는 반면, 겉으로 보기에 완벽한 이성에 대해서는 매력도를 높게 지각한다. 이는 상대의 우월한 특성들을 활용하여 자기 자신을 돋보이도록 만들려는, 일종의 도구적 의미의 낭만적 파트너(trophy spouse)를 기대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Hewitt & Flett, 1991). 또한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낭만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성향을 보이며(Campbell, 1999), 자신의 연인에 비해 자신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긴다(Campbell, Rudich, & Sedikides, 2002). 이러한 결과는 나르시시스트들이 긍정적 자기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연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가치를 손상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들은 높은 가치를

지난 사람을 연인으로 선택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상대방보다 자신이 더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낭만적 관계의 대상을 물색하는 시도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나르시시스트들이 낭만적 관계에서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태도와 관계가 있다. Campbell, Foster와 Finkel(2002)은 나르시시즘 성향과 유희적인(game-playing) 사랑을 의미하는 루두스(ludus) 성향 간의 정적 상관을 보고했다. 또한 루두스적 사랑 태도는 나르시시즘과 낭만적 관계에서의 헌신 간의 부적 관계를 매개하였다.

나르시시즘과 관계에 대한 헌신 간의 부적 관계를 보고한 연구(우성범 등, 2012; Campbell & Foster, 2002)와 헌신과 외도 간의 관계가 부적 상관을 보인다는 연구(Drigotas et al., 1999)에 의거하여, 나르시시즘과 외도 간의 정적 관계를 예상할 수 있다. 나르시시즘과 외도 행동 가능성의 지각 정도 사이에 정적 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Buss & Shackelford, 1997)는 이와 같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성격 변인으로서 나르시시즘을 상정하고,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를 예상하였다.

나르시시즘의 성차

나르시시즘의 성차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나르시시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Foster, Campbell, & Twenge, 2003; Grijalva et al., 2015; Ryan, Weikel, & Sprechini, 2008; Twenge, Konrath, Foster, Campbell, & Bushman, 2008). 그러나 나르시시즘 성격 척도(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askin & Terry, 1988)에 대한 시교차적 메타연구(Twenge et al., 2008)에 따르면, 1980년부터 2006년 사이의 미국 대학생들이 가지는 전반적인 나르시시즘 점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나, 나르시시즘의 성차는

줄어들고 있다. Grijalva 등(2015)의 메타연구에서도 나르시시즘의 성차는 미미한 수준($d =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나르시시즘은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차이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나르시시즘과 성별을 함께 살펴 본 연구들에서는 성별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지 않은 연구들이 다수 있었다(Campbell & Foster, 2002; Finkel, Campbell, Buffardi, Kumashiro, & Rusbult, 2009; Park & Colvin, 2015; Tanchotsrinon, Maneesri, & Campbell, 2007). 예를 들면, 나르시시즘이 타인 폄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Park & Colvin, 2015)에서는 타인 폄하에 있어서 참여자의 나르시시즘과 성별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집단적 문화 내에서 나타나는 나르시시즘과 이성적 끌림(romantic attraction) 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Tanchotsrinon 등(2007)의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르시시즘과 성별 사이의 상호작용효과가 도출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외도 의도에 대한 성별과 나르시시즘 간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낭만적 관계의 상황적 요인로서의 투자 모델

투자 모델(investment model; Rusbult, 1980)은 낭만적 관계의 안정성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들을 제시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관계에 대한 헌신(commitment)은 관계로부터 얻는 만족도(satisfaction)와 관계에 대한 투자 정도(investment size)의 합에, 대안의 질(qualities of alternative)을 뺀 값으로 개념화될 수 있다. Rusbult(1980)는 낭만적 관계에 있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현재 관계에 대한 만족도, 현재 관계에 대한 투자 정도, 대안의 질, 현재 관계에 대한 헌신 정도를 측정 한 뒤, 현재 관계에 대한 헌신 정도에 대해 각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만족도와 투자 정도는 낭만적 관계에 있어서의 헌신을 정적인 방향으로 예측하는 반면, 대안의 질은 헌신을 부적인 방향으로 예측하였다.

이후 투자 모델은 많은 연구에서 사용되었다(Davis & Strube, 1993; Drigotas et al., 1999; Impett, Beals, & Peplau, 2001; Rusbult, Johnson, & Morrow, 1986). 특히 Impett 등(2001)의 종단 연구에서는 부부 데이터를 통해 남편과 부인의 헌신 정도를 투자 모델 척도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고, 부부 각각의 헌신 정도가 결혼 안정도를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남편과 부인이 각자 보고한 투자 모델의 결과는 기존의 모델과 동일한 모형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로부터 도출된 부부 각각의 헌신 정도가 결혼 안정도를 정적으로 예측함이 드러났다. 또한 성인 애착과 관계 헌신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도 투자 모델을 사용하였다(Etcheverry, Le, Wu, & Wei, 2013). 일반적으로 성인 애착의 유형 중 안정 애착인 사람들은 불안정 애착의 사람들에 비해 낭만적 관계 내에서 더 높은 수준의 헌신, 믿음과 만족감을 나타낸다(Simpson, 1990). 성인의 불안정 애착인 관계 불안(anxiety)과 관계 회피(avoidance)는 낭만적 관계의 헌신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냈는데, 관계 불안과 헌신과의 관계는 투자 모델의 요인 중 만족도가 매개하고, 관계 회피와 헌신 간의 관계는 만족도, 투자 정도, 대안의 질이 모두 매개하였다. 이를 통해 Etcheverry 등(2013)은 관계 불안과 관계 회피가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헌신과 부적 관계를 나타냄을 밝혔다.

이처럼 투자 모델은 낭만적 관계를 연구함에 있어서 효과적인 모델로 여겨져 왔다. 특히 관계에 대한 헌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관계 내 역학(만족도, 투자 정도)과 관계 외 역학(대안의 질)을 함께 고려했다는 것은 투자 모델의 큰 장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투자 모델 내 두 가지 요인(투자 정도, 대안의 질)들을 조작하여 구분한 낭만적 관계의 다양한 상황에서 나타

나는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 보았다. 외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헌신(Drigotas et al., 1999)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투자 모델의 요인들을 조작함으로써 외도 의도에 미치는 상황적 특성의 영향력을 효과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도 의도에 대한 개인 × 상황 상호작용적 접근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 개인과 상황의 영향력을 연구할 때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압도한다는 경쟁적인 측면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Funder, 2006; Mischel, 1977). 실제로 개인의 행동과 의도에 대한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예, Debusscher, Hofmans, & De Fruyt, 2017; Ozimek & Forster, 2017; Palmer, Komarraju, Carter, & Karau, 2017). 한 예로, Debusscher 등(2017)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업무의 복잡성과 상급 관리자의 지원이 갖는 효과가 종업원 개인이 갖고 있는 핵심자기평가(자존감, 자기효능감, 통제감, 정서적 안정성 등으로 구성)의 정도에 의해 조절됨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핵심자기평가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상급 관리자의 지원과 업무의 복잡성이 업무 수행에 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만, 낮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업무가 복잡하고, 상급 관리자의 지원이 높을수록 업무 수행이 낮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업무 수행에 대해 상황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상호작용하여 영향을 끼침을 나타내고 있다.

나아가, 개인의 특성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Mischel, 1977). 예를 들어, 장례식과 같이 상황이 가지고 있는 요구특성이 큰 “강한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하게 행동하는 반면에, 상황적 규범이 크지 않은 커피숍과 같은 “약한 상황”에서는 각자의 성격에 따라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실질적인 예로 쇼핑 장면을 들 수 있다. 상품의

품질이 좋고 가격이 저렴한 상황은 많은 사람들의 구매를 높이는 강한 상황이고, 품질이 나쁜데 가격은 비싼 상황은 구매를 낮추는 강한 상황이다. 그러나 상품의 품질은 좋으나 가격이 비싸거나, 품질은 낮지만 가격 역시 저렴한 상황은 일반적인 구매 행동을 예측하기 어려운 약한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적 특성만으로는 구매 행동을 예측하기 힘들다. 이 경우 개인의 특성으로서의 구매 욕구 등이 구매 행동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나르시시즘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역시 상황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예측했다. 현재 맺고 있는 낭만적 관계에 투자를 많이 하고 대안의 질이 낮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외도 의도를, 투자는 낮고 대안의 질은 높은 상황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높은 외도 의도를 가질 수 있다(강한 상황). 반면, 투자도 많이 하고 대안의 질도 높거나, 반대로 투자와 대안의 질 모두 낮은 경우에는 상황이 갖고 있는 모호함 때문에 성격적 요인인 나르시시즘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약한 상황). Jones와 Weiser(2014)는 나르시시즘과 외도 사이의 관계에 상황적 요인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연구 1에서는 상황적 특성이 모호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약한 상황에서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외도 의도에 갖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연구 2에서는 상황이 가지고 있는 모호함을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나르시시즘이 외도에 갖는 효과가 상황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을 설문지를 통해 측정된 뒤, 외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서술한 시나리오를 통해 외도 의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1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는 투자와 대안의 질이 모두 높은 상황, 즉 상황적 특성이 모호한 약한 상황을 묘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외도 의도를 가지며(Atkins et al., 2001; Lalasz & Weigil, 2011), 외도 의도와 나르시시즘 간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Buss & Shackelford, 1997)가 나타날 것을 가정했다.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가정은 나르시시즘과 헌신이 서로 부적 관계에 있다는 연구(우성범 등, 2012; Campbell & Foster, 2002)와 헌신과 외도 간의 부적 관계를 확인한 연구(Drigotas et al., 1999)를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또한, 나르시시즘의 성차가 크지 않고(Grijalva et al., 2015; Twenge et al., 2008), 나르시시즘과 성별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은 연구결과(Park & Colvin, 2015; Tanchotsrinon et al., 2007)를 기반으로, 나르시시즘과 성별은 상호작용 없이 독립적으로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외도 의도에 관한 다수의 연구에서 외도 의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Lalasz & Weigil, 2011; McIntyre, Barlow, & Hayward, 2015). McIntyre et al.(2015)에 따르면, 외도 의도는 실험실 내에서 측정하기 어려운 변인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시나리오 내의 내용을 상상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방 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현재 결혼 생활 중인 성인 남녀($N = 116$)가 인터넷 설문 조사 업체를 통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설문 조사 시작 이전에 결혼 여부를 확인하여, 미혼인 경우에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연구

연구 1

연구 1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기혼 남녀를 대상으로 나르시시즘적인 성격 특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47.00세($SD = 7.83$)였으며, 범위는 30세에서 59세였다. 구체적으로는 남성($n = 57$)의 평균 나이는 46.72세($SD = 7.86$)였으며, 여성($n = 59$)의 평균 나이는 47.27세($SD = 7.87$)였다.

참여자들은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성격 척도 및 연구 목적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몇 가지 다른 성격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그 뒤, 결혼 생활 중에 가지게 된 외도 기회 상황을 서술한 시나리오를 제시받았다. 시나리오를 읽은 뒤, 참여자들은 종속변인인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은 성별, 나이 등의 인구통계학 문항에 응답하는 것으로 설문 조사를 종료하였다. 모든 설문 조사 과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연구의 실제 목적에 관해 충분히 설명된 안내문을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측정 도구

나르시시즘

참여자들의 나르시시즘적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NPI; Raskin & Terry, 1988)를 7점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한수정(1999)이 번안한 40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나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타고난 능력이 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다른 사람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다’,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등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자의 나르시시즘적인 성격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NPI척도를 통해 측정된 나르시시즘 점수를 평균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6).

시나리오

참여자들은 외도가 가능한 상황이 묘사되어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를 읽었다. 시나리오는 만족도와 투자정도가 모두 높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기혼자가 친구들과 등산을 하다 매력적인 이성을 만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시나리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현재 기혼자입니다.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는 문제가 없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가 결혼한 지는 10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릴 적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배우자는 가사나 육아활동뿐 아니라 직장 생활도 함께 해 오고 있으며 한 달에 두 번 이상 공동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친구들과 함께 주말을 맞아 등산하러 나갔는데 그 곳에서 한 명의 이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의 외모는 당신의 이상형과 흡사했습니다. 만나는 동안, *그녀*의 취미나 관심사가 당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머 코드가 유사하여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격에서도 당신은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녀* 역시 당신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도 의도

시나리오를 모두 읽고 난 뒤, 참여자들은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3문항에 응답하였다. 외도 의도 문항은 외도 척도(Infidelity Scale; Drigotas et al., 1999)의 문항 중 시나리오 상황에 적합한 것을 발췌, 수정하였다. 제시된 문항은 ‘등산에서 만난 이성과 만나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등산에서 만난 이성과 연애했 의향이 있으십니까?’, ‘등산에서 만난 이성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하시겠습니까?’이며,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위의 문항들에 대한 점수를 평균 내어 ‘외도 의도’라는 통합 변인을 생성하였고, 이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하

였다(Cronbach's alpha = .95).

결 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나이는 다른 변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외도 의도를 더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르시시즘도 외도 의도와 정적 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성별과 나르시시즘 간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속변인인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성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나르시시즘 점수와 성별(여 = -1, 남 = 1)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외도 의도와 성별,

나르시시즘 간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각각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은 외도 의도를 가지며, 나르시시즘의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외도 의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상했던 바와 같이, 외도 의도에 대한 성별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연구 1을 통해 외도 의도와 나르시시즘, 성별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1에서 사용된 시나리오에 투자와 대안의 질이 모두 높은, 즉 외도 의도에 대한 상황적 영향력이 약한 상황을 그리고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연구 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많은 외도 의도를,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더 많은 외도 의도를 가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 | 평균 | 표준편차 | 나이 | 성별 | 나르시시즘 |
|-------|-------|------|------|--------|-------|
| 나이 | 47.00 | 7.83 | - | | |
| 성별 | - | - | -.04 | - | |
| 나르시시즘 | 3.92 | 0.77 | -.03 | .17 | - |
| 외도 의도 | 3.13 | 1.74 | .06 | .36*** | .27** |

주. 성별은 여(-1), 남(1)으로 코딩 됨.

* $p \leq .05$. ** $p \leq .01$. *** $p \leq .001$.

표 2. 외도 의도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성별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 종속변인 | 모델 | 독립변인 | B | SE | p |
|-------|----|------------|-------|-----|-------|
| 외도 의도 | 1 | 나르시시즘 | 0.47 | .20 | .017 |
| | | 성별 | 0.56 | .15 | <.001 |
| 외도 의도 | 2 | 나르시시즘 | 0.40 | .21 | .061 |
| | | 성별 | 0.55 | .15 | <.001 |
| | | 나르시시즘 × 성별 | -0.22 | .21 | .297 |

지고 있었다. 이러한 나르시시즘과 성별의 효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Atkins et al., 2001; Buss & Shackelford, 1997; Lalasz & Weigel, 2011). 또, 외도 의도에 대한 성별과 나르시시즘 사이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즉, 외도 의도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효과는 성별에 관계없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비록 예상했던 결과를 얻기는 했지만, 연구 1의 결과에는 한 가지 잠재적인 문제가 있다. 참여자들은 시나리오를 읽고 자신이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인 것처럼 상상하라고 요청받았지만, 시나리오의 내용을 상상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실제 부부 관계가 반영되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McIntyre 등(2015)의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당시 낭만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의 여부를 통제했을 때 시나리오를 읽고 난 뒤의 외도 의도에 대한 성격적 특성의 영향력이 약해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낭만적 관계가 시나리오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Brewer, Hunt, James, & Abell, 2015).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 2에서는 현재 낭만적 관계에 있지 않은 참여자만을 모집하였다.

또한, 미팅 상황을 시나리오로 사용한 연구 2에서는 남성만을 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미팅은 한국 사회에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수단으로 자주 쓰이는 방법이고, 미팅 후 후속적인 만남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는 것은 주로 남자들이기 때문이다(경향신문, 2011). 이렇게 사회에서의 성 역할에 맞게 참여자의 성별을 제한하는 연구는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한 예로, 나르시시즘이 이성과의 첫 만남에서 더 호감을 얻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Dufner et al., 2013, 연구 3), 연구자들은 남성 참여자들로 하여금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연락처를 받아오라고 지시하였는데, 나르시시즘이 높은 남성일수록 연락처를 더 많이 받아냈다. 이와 같이 참여자 모집에 제한을 둬으로써 외도 의도 측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변인들을 통제하고, 이를 통해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상황적 특성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연구 2

연구 2에서는 나르시시즘과 더불어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적 요인들, 즉 투자 정도(높음 vs. 낮음)와 대안의 질(높음 vs. 낮음)을 시나리오를 통해 실험적으로 조작하였다. 본 연구에서 투자 모델의 3요소 중 만족도는 조작하지 않았는데, 만족도는 헌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Impett et al., 2001; Rusbult, 1980) 만족도를 조작할 경우 다른 요인의 영향력을 압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서 만족도 요인을 동일한 수준으로 통제하였다.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참여자들은 나르시시즘 척도에 답한 후에 4개 중 1개의 시나리오를 읽고 외도 의도 문항에 답변하였다. 연구 2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시나리오 상의 상황적 특성, 즉 실험적으로 조작한 투자 정도의 수준과 대안의 질의 수준은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관계에 투자한 양이 많을수록 외도 의도가 낮아지고, 대안의 질이 높을수록 외도 의도가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외도 의도는 투자는 낮고 대안의 질은 높은 조건에서 가장 높을 것이다. 성격 변인으로서의 나르시시즘은 투자는 높고 대안의 질은 낮거나, 투자는 낮고 대안의 질은 높은 경우에는 강한 상황적 특성 때문에 외도 의도를 예측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와 대안의 질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아 상황적 특성이 다소 모호한 경우에 외도 의도와 정적 상관을 가질 것이다.

방법

연구 참여자 및 절차

현재 낭만적 관계에 있지 않은 남자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N = 143$)이 연구 참여자 모집 공고문을 보고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22.91세($SD = 2.76$)였으며, 범위는 18세에서 35세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사전에 약속된 시간에 맞춰 실험실에 입실한 뒤, 연구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모든 실험 절차는 실험실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다. 우선 참여자들은 나르시시즘을 측정하는 척도와 함께 연구 목적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제시된 몇 가지 다른 성격 질문지에 응답하였다. 그 뒤, 참여자들은 낭만적 관계의 상황적 요인에 관한 조작에 따라 총 4가지로 구분된 시나리오 중 하나를 무작위로 제시받았다. 참여자들에게 제시된 시나리오는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낭만적 관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에 관한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은 뒤에, 조작점점 문항과 함께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참여자들이 모든 문항에 응답을 완료하는 것으로 실험 절차는 종료되었으며, 실험을 마친 참여자들은 실험 진행자에게 본 실험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뒤,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연구의 실제 목적을 묻는 문항에 대해 검토한 결과, 모든 연구 참여자가 실제 목적에 근접한 응답을 하지 않았다. 그에 따라 모든 참여자들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도구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적인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 1과 마찬가지로 ‘나는 여러 사람에게서 주목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등의 40 문항으로 구성된 NPI(Raskin & Terry, 1988)를 이용하였다. NPI에 대한 측정은 각 문항에 대해

동의하면 1점, 동의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하는 강제 선택형으로 실시되었다. 그에 따라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참여자의 나르시시즘적인 성격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NPI를 통해 측정된 점수는 합산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Cronbach's $\alpha = .88$).

시나리오

시나리오에는 낭만적 관계 중에 있는 남성이 친구들의 권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미팅에 나가 현재 연인이 아닌 다른 이성을 만나는 상황이 서술되었다. 시나리오는 현재 낭만적 관계에 투자한 정도(투자 정도: 높음 vs. 낮음)와 미팅에서 만난 이성의 질(대안의 질: 높음 vs. 낮음)에 따라 조작되었으며, 총 네 가지의 시나리오로 구성되었다.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에 대한 조작은 투자 모델의 내용(Rusbult, 1980)에 의거하였으며, 구체적으로 투자 정도의 경우에는 함께한 시간, 친구의 공유 여부 등을, 대안의 질은 대안의 외모 수준, 취미나 관심사의 공통성 여부 등을 조작하였다. 시나리오는 아래에 제시되어 있으며, 밑줄 친 내용은 조작 수준이 높은 경우이고, 괄호 안의 내용은 조작 수준이 낮은 경우를 나타낸다.

대학생인 당신은 현재 연애 중에 있습니다. 당신과 여자친구 사이에는 문제가 없으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여자친구는 같은 과에 재학 중입니다. 알고 지낸 지는 10년이며, 연애한 지는 3년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친한 친구들도 많고, 그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어릴 적 친구들과라도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과 여자친구는 데이트가 아니더라도, 공부도 함께 해 왔고 한 달에 두 번 이상 공동의 취미 생활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당신과 여자친구는 서로 다른 과에 재학 중입니다. 연애한 지는 3개월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서로의 친구들은 알지 못합니다. 서로의 어릴 적 친구들과도 교류한 적이 없

습니다. 당신과 여자친구는 데이트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각자 따로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취미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당신은 솔로인 친구들의 성화로 인해 사람 수를 맞추기 위해 미팅에 나갔습니다. 파트너가 된 이성의 외모는 당신의 이상형과 흡사했습니다. 미팅을 하는 동안, 그녀의 취미나 관심사가 당신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유머 코드가 유사하여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격에서도 당신은 많은 매력을 느꼈습니다(파트너가 된 이성의 외모는 평범했습니다. 미팅을 하는 동안, 그녀의 취미나 관심사가 당신과는 관계가 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고, 유머 코드가 달라 대화가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녀의 성격에서도 당신은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당신은 그녀가 미팅 주선자를 통해 당신에게 관심이 있고, 다시 한 번 만나보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친구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조작 점검

시나리오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시나리오 내 연인과의 투자 정도와 미팅에서 만난 이성의 매력도 수준을 묻는 문항을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투자 정도에 대한 조작 점검은 ‘당신은 연애하는 동안 여자친구에게 (정신적 혹은 물질적인) 투자를 얼마나 하셨습니까?’로 측정하였으며, 대안의 질에 대한 조작 점검 문항으로는 ‘미팅에서 만난 당신의 파트너는 얼마나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가 사용되었다.

외도 의도

조작 점검에 대한 응답을 완료한 뒤, 참여자들은 외도 의도를 측정하는 3문항에 응답하였다. 외도 의도 문항은 연구 1에서와 마찬가지로 Drigotas 등(1999)의 외도 척도를 시나리오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발췌, 수정하였다. 문항은 ‘미

팅에서 만난 파트너에게 애프터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미팅에서 만난 파트너와 만나 볼 의향이 있으십니까?’, ‘미팅에서 만난 파트너와 사귄 의향이 있으십니까?’의 3문항으로 7점 척도(1 = 전혀 아니다, 7 =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위의 문항들에 대한 답변을 평균 내어 ‘외도 의도’라는 통합 변인을 생성하였고, 이를 종속변인으로 활용하였다(Cronbach’s alpha = .93).

결 과

시나리오 조작 점검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시나리오 상의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조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투자 정도가 기준일 때는 투자 정도 조작점검 문항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반면, $t(141) = -3.59, p < .001$, 대안의 질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141) = -1.63, p = .897$. 반대로, 대안의 질이 기준일 때에는 대안의 질 점검 문항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나, $t(141) = -22.47, p < .001$, 투자 정도에 대한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t(141) = 0.13, p = .105$. 이를 통해 시나리오 조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도 의도에 대한 상황적 특성의 영향

우선 낭만적 관계의 상황적 특성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나리오 상의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 외도 의도의 수준이 다른지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을 독립변인으로, 외도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여 이원분산분석(2-way ANOVA)을 실시하였다(그림 1). 그 결과, 두 독립변인 모두 유의미한 주효과가 나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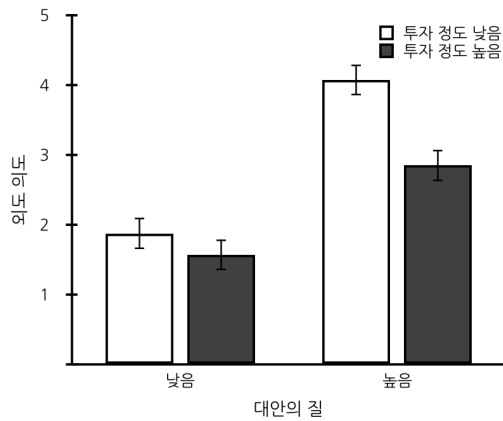


그림 1. 외도 의도에 대한 상황적 특성의 효과

났다. 구체적으로, 대안의 질이 높은 상황($M = 3.43, SD = 1.71$)에서 낮은 상황($M = 1.72, SD = 0.98$)에 비해 외도 의도가 높았다, $F(1, 139) = 61.01, p < .001, \eta^2 = .31$. 또, 투자를 적게 한 상황($M = 2.94, SD = 1.78$)에서 투자를 많이 한 상황($M = 2.24, SD = 1.41$)에 비해 외도 의도가 높았다, $F(1, 139) = 11.60, p = .001, \eta^2 = .08$. 나아가 두 독립변인 간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유의미하였다, $F(1, 139) = 4.26, p = .041, \eta^2 = .03$. 상호작용효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주효과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 결과, 대안의 질의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투자 정도의 수준에 따라 외도 의도에서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F(1, 139) = 0.90, p = .345, \eta^2 = .01$. 반면, 대안의 질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투자를 적게 한 상황($M = 4.07, SD = 1.67$)의 참여자들이 투자를 많이 한 상황($M = 2.85, SD = 1.55$)의 참여자들보다 더 높은 외도 의도를 보였다, $F(1, 139) = 15.05, p < .001, \eta^2 = .10$.

외도 의도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상황적 특성의 상호작용

외도 의도에 대한 나르시시즘, 투자 정도, 외도 대상의 질 사이의 삼원상호작용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한 나르시시즘 변인과 투자 정도(낮음 = -1, 높음 = 1), 대안의 질(낮음 = -1, 높음 = 1)을 예측변인으로 설정한 뒤, SPSS PROCESS(Hayes, 2013)를 이용하였다. 표 3에서 나타나듯,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투자 정도, 대안의 질로 이루어진 삼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였다.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독립변인들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단순기울기분석을 실시하였다(Dawson, 2014). 그 결과(표 4, 그림 2), 두 가지 상황적 요인이 모두 높은 수준인 경우에 나르시시즘은 외도 의도에 대해 정적인 방향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으며, 두 가지 상황적 요인이 모두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나르시시

표 3. 외도 의도에 대한 나르시시즘과 투자 정도, 대안의 질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효과

| 준거변인 | 예측변인 | B | SE | p |
|-------|-----------------------|-------|-----|-------|
| | 나르시시즘 | 0.03 | .02 | .043 |
| | 투자 정도 | -0.24 | .12 | .043 |
| | 대안의 질 | 0.99 | .12 | <.001 |
| 외도 의도 | 나르시시즘 × 투자 정도 | 0.03 | .02 | .111 |
| | 나르시시즘 × 대안의 질 | 0.00 | .02 | .989 |
| | 투자 정도 × 대안의 질 | -0.19 | .12 | .114 |
| | 나르시시즘 × 투자 정도 × 대안의 질 | 0.05 | .02 | .006 |

표 4. 각 조건에 따른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영차 상관 및 단순 기울기 분석

| 변인 | | 영차 상관 | | 단순 기울기 | | |
|-------|-------|----------|----------|----------|-----------|----------|
| 투자 정도 | 대안의 질 | <i>r</i> | <i>p</i> | <i>B</i> | <i>SE</i> | <i>p</i> |
| 높음 | 높음 | .38 | .022 | 0.10 | .04 | .008 |
| | 낮음 | .13 | .483 | 0.01 | .03 | .639 |
| 낮음 | 높음 | -.16 | .377 | -0.04 | .03 | .249 |
| | 낮음 | .36 | .031 | 0.05 | .03 | .08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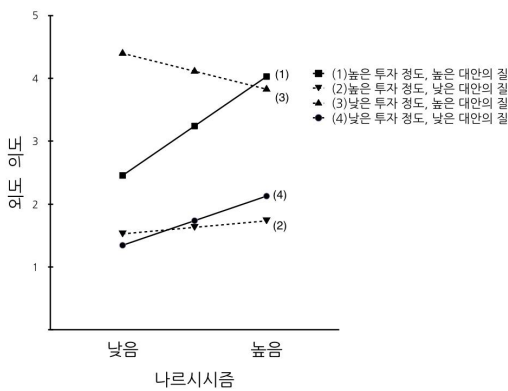


그림 2. 외도 의도에 대한 나르시시즘의 단순효과 그래프

즘과 외도 의도 간에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정적 방향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면, 투자 정도는 높으나 대안의 질이 낮은 경우와 대안의 질은 높으나 투자 정도가 낮은 수준인 경우에는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사이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조작된 상황 요인들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뒤,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영차 상관을 살펴본 결과도 단순기울기분석과 유사하였다. 두 가지 상황적 요인의 수준이 모두 높거나, 낮은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유의미한 정적 관계가 나타난 반면, 두 가지 상황적 요인이 서로 다른 수준일 때는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논 의

연구 2에서는 낭만적 관계 내에서의 외도 의도와 상황적 특성(투자 정도, 대안의 질), 나르시시즘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외도 의도는 상황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대안의 질과 투자의 정도는 주효과를 보여, 대안의 질이 높거나 투자가 낮은 경우에 외도 의도가 높았다. 또, 두 변인 사이의 상호작용 역시 유의미하여 대안의 질이 높고 투자가 낮은 경우에 외도 의도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외도에 대해 투자 정도는 부적 관계를 가지는 반면, 대안의 질은 정적 관계를 보였던 이전의 연구들(Drigotas et al., 1999; Fricker & Moore, 2006)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나아가,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가 조작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외도 의도의 수준도 높아진다는 결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두 요인의 수준이 모두 낮은 경우에는 나르시시즘이 높을수록 외도 의도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반면,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수준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투자 정도가 높고 대안의 질이 낮은 경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도 의도를 갖기보다는 현재 낭만적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고, 투자 정도가 낮고 대안

의 질이 높은 경우에는 외도 의도를 가지려고 할 것이다(Drigotas et al., 1999; Fricker & Moore, 2006). 이처럼 외도 의도에 대해 상황적 특성이 동일한 방향으로 효과를 미칠 때에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수 있다. 그러나 두 가지 상황적 특성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모호한 상황, 즉 투자와 대안의 질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상황에서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드러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도 의도를 예측함에 있어서 개인과 상황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예측력을 높이는 데 상호보완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외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개인 × 상황 상호작용의 관점(Funder, 2006; Mischel, 1977)에서 살펴 보았다. 상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요구특성이 큰 경우(강한 상황)에는 개인의 특성이 나타나지 않지만, 모호한 상황(약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특성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 아래 두 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1의 참여자들은 낭만적 관계에 투자한 정도가 높지만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는 상황, 즉 두 요소가 상충하여 모호한 상황이 묘사된 시나리오를 읽고 새로운 이성과의 외도 의도에 대해 답변하였는데 그 결과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의 나르시시즘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는 높은 사람의 외도 의도가 높았다. 연구 2에서는 시나리오를 실험적으로 조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강한 상황과 약한 상황을 연출한 후, 나르시시즘이 외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이 모두 높거나 모두 낮은 상황, 즉 두 요인이 상충되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약한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높은 외도 의도를 보였다. 반면,

투자 정도가 높고 대안의 질은 낮은 상황 혹은 투자 정도가 낮고 대안의 질은 높은 상황에서는 나르시시즘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개인과 상황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 보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외도 의도에 대해 나르시시즘과 상황의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으나(Jones & Weiser, 2014), 실제로 이러한 연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 특성과 개인이 처해 있는 상황적 특성 모두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그에 더해 개인과 상황이 상호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인간의 행동에 대한 설명과 예측이라는 심리학의 근본적인 목적을 염두에 둘 때, 개인과 상황 중 어느 쪽의 설명력이 더 강한지에 대한 논쟁에 치우치기보다는 개인적 특성과 상황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인 × 상황의 상호작용적 접근을 취한 많은 연구들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2의 시나리오 조작에 있어서 만족도를 조작하지 않았다. 만족도가 헌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기 때문에 (Impett et al., 2001; Rusbult, 1980), 본 연구에서는 만족도에 대한 조작이 다른 요인들의 조작 효과를 모두 포괄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만족도 변인을 고정하였다. 그러나 Drigotas 등 (1999)의 연구에 따르면, 만족도는 종합적인 외도만이 아니라, 외도를 성적, 정서적 외도로 구분하였을 때에도 관계 헌신과 함께 꾸준히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 연구에서 조작한 투자 정도와 대안의 질의 경우에는 종합적인 외도에만 각각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졌다. 향후 직접적으로 만족도의 수준을 조작하여, 외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

둘째, 연구 2의 참여자로 낭만적 관계에 있지 않은 남성 참여자들만을 모집한 것은 장점인 동시에 한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낭만적 관계

에 대한 참여자 제약은 참여자들의 실제 낭만적 관계의 상황이 연구에서 사용된 시나리오를 상상하는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여 종속 변인의 측정에 오류가 생길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Brewer et al., 2015). 또한 낭만적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수단으로 미팅이 자주 이용되고, 보통 남성이 후속 연락을 취한다는 사실에 의거(경향신문, 2011) 남성 참여자만을 모집하였으나(Dufner et al., 2013) 이러한 제한은 나르시시즘이 높은 여성의 외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살펴보지 않아 일반화에 제한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실제로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낭만적 관계 중인 참여자들이나 여성들을 대상으로도 도출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도 의도와 같이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변인인 경우,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의 이유로 응답이 과소 편향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과거 외도 경험이나 외도 의도를 설문지를 통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응답의 과소 편향이 더욱 더 심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이용하였지만(Lalasz & Weigel, 2011; McIntyre et al., 2015), 기존 연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외도 의도의 평균 점수가 낮게 측정되었다(Brewer et al., 2015; Lalasz & Weigel, 2011). 물론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해 응답이 다소 과소 편향되었다더라도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으나 향후 현장에서 비노출적으로 행동을 관찰하는 등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외도는 개인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차원에서, 외도는 낭만적 파트너에게 삶의 만족도를 포함한 심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Chung et al., 2002; Rhoades, Kamp Dush, Atkins, Stanley, & Markman, 2011), 낭만적

관계에서의 이별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Lampard, 2014). Cleck과 Pearson(1985)에 따르면, 남녀 모두 상대방의 외도를 18개의 주요 이혼 원인 중 10위 권 내로 꼽았다. 게다가 성공적인 낭만적 관계와 개인의 행복 간의 정적 관계(Myers & Diener, 1995; Patrick, Knee, Canevello, & Lonsbary, 2007)를 생각해보면, 외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낭만적 관계의 종결은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외도는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외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며(Daly & Wilson, 1988), 외도 등으로 인한 이혼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Schramm(2006)은 2001년에 발생한 미국 유타 주 내 이혼으로 인해 법원(courts), 각종 사회 복지(temporary assistant for needy families) 등에서 발생하는 직접적 비용이 7천 6백만 불 이상이며, 연합 정부에서 책정된 2001년 유타 주의 이혼으로 인한 공공 주택 보조(public housing assistance), 저소득층 에너지 보조(low income 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등과 같은 직접적 비용은 1억 2천만 불 이상이라고 보고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외도가 낭만적 관계의 종결로 인한 개인적 불행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이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이선경, 팔로마 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는 한국 사회 내의 청년들의 외도 문제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르시시즘과 외도 의도 간의 정적 관계를 확인한 본 연구 결과는 한국 사회 내의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외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개인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외도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민일보 (2014, 4, 16). “기혼男女 여러분, 새 연애 하세요” 불륜조장 사이트 ‘애슐리 메디슨’… 접속 차단 ‘철폐’. <http://news.kukinews.com/news/article.html?no=198216>에서 2016. 08. 17. 자료 얻음.
- 경향신문 (2011. 3. 29). 소개팅 애프터 신청, 남자 ‘3일 이내 먼저’ 여자는?.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103291630061>에서 2017년 2월 12일. 자료 얻음.
- 동아일보 (2016, 1, 19). 미혼남녀가 꼽은 이혼 사유 1위 ‘외도’…기혼과 달라도 너무 달라. <http://news.donga.com/3/all/20160119/75993716/2#csidx205301d2471c9ffbd4fcc8ffd6d23d2>에서 2016. 08. 17. 자료 얻음.
- 성한기, 손영화 (2007). 기혼 여성의 성가치관이 결혼 만족, 혼외관계 의도 및 이혼 의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75-196.
- 우성범, 남숙경, 이승민, 양은주 (2012). 이차원적 자기애적 성향과 연애관계 양상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87-101.
- 이선경, 팔로마베나비데스, 허용희, 박선웅 (2014). 일반 한국 대학생들의 나르시시즘 증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3(3), 609-628.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성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정민, 조민수, 홍세은, 박선웅 (2016). 나르시시즘과 의복 이미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0(2), 27-41.
- Atkins, D. C., Baucom, D. H., & Jacobson, N. S. (2001). Understanding infidelity: Correlates in a national random samp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4), 735-749.
- Back, M. D., Schmukle, S. C., & Egloff, B. (2010). Why are narcissists so charming at first sight? Decoding the narcissism - popularity link at zero acquaint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8(1), 132-145.
- Baumeister, R. F., Catanese, K. R., & Vohs, K. D. (2001). Is there a gender difference in strength of sex drive? Theoretical views, conceptual distinctions, and a review of relevant evidenc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5(3), 242-273.
- Blow, A. J., & Hartnett, K. (2005). Infidelity in committed relationships II: A substantive review.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31(2), 217-233.
- Brewer, G., Hunt, D., James, G., & Abell, L. (2015). Dark Triad traits, infidelity and romantic reveng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3, 122-127.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229.
- Buss, D. M., & Shackelford, T. K. (1997). Susceptibility to infidelity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1(2), 193-221.
- Campbell, W. K. (1999).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6), 1254-1270.
- Campbell, W. K., & Foster, C. A. (2002). Narcissism and commitment in romantic relationships: An investment model analysi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4), 484-495.
- Campbell, W. K., Foster, C. A., & Finkel, E. J. (2002). Does self-love lead to love for others?: A story of narcissistic game play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3(2), 340-354.
- Campbell, W. K., Rudich, E. A., & Sedikides, C. (2002). Narcissism, self-esteem, and the

- positivity of self-views: Two portraits of self-lov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8(3), 358-368.
- Chung, M. C., Farmer, S., Grant, K., Newton, R., Payne, S., Perry, M., ... & Stone, N. (2002). Self esteem, personality and post traumatic stress symptoms following the dissolution of a dating relationship. *Stress and Health*, 18(2), 83-90.
- Cleek, M. G., & Pearson, T. A. (1985). Perceived causes of divorce: An analysis of inter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1), 179-183.
- Daly, M., & Wilson, M. (1988). *Homicide*.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
- Davis, L. E., & Strube, M. J. (1993). An Assessment of Romantic Commitment Among Black and White Dating Couple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3(3), 212-225.
- Dawson, J. F. (2014). Moderation in management research: What, why, when, and how. *Journal of Business and Psychology*, 29(1), 1-19.
- Debuscher, J., Hofmans, J., & De Fruyt, F. (2017). Core self-evaluations as a moderato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ask complexity, job resources, and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Work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1-10.
- Drigotas, S. M., & Barta, W. (2001). The cheating heart: Scientific explorations of infidel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5), 177-180.
- Drigotas, S. M., Safstrom, C. A., & Gentilia, T. (1999). An investment model prediction of dating infide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7(3), 509-524.
- Dufner, M., Rauthmann, J. F., Czarna, A. Z., & Denissen, J. J. (2013). Are narcissists sexy? Zeroing in on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hort-term mate appeal.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9(7), 870-882.
- Etcheverry, P. E., Le, B., Wu, T. F., & Wei, M. (2013). Attachment and the investment model: Predictors of relationship commitment, maintenance, and persistence. *Personal Relationships*, 20(3), 546-567.
- Foster, J. D., Campbell, W. K., & Twenge, J. M.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narcissism: Inflated self-views across the lifespan and around the worl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469-486.
- Finkel, E. J., Campbell, W. K., Buffardi, L. E., Kumashiro, M., & Rusbult, C. E. (2009). The metamorphosis of Narcissus: Communal activation promotes relationship commitment among narcissis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10), 1271-1284.
- Fricker, J., & Moore, S. (2006). *Predicting infidelity: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love styles, and the Investment Model*. Swinburne University of Technology.
- Funder, D. C. (2006). Towards a resolution of the personality triad: Persons, situations, and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1), 21-34.
- Grijalva, E., Newman, D. A., Tay, L., Donnellan, M. B., Harms, P. D., Robins, R. W., & Yan, T. (2015).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61-310.
- Guitar, A. E., Geher, G., Kruger, D. J., Garcia, J. R., Fisher, M. L., & Fitzgerald, C. J. (2016). Defining and distinguishing sexual and emotional infidelity. *Current Psychology*, 1-1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york: Guilford Press.
- Hewitt, P. L., & Flett, G. L. (1991).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Impett, E. A., Beals, K. P., & Peplau, L. A. (2001). Testing the investment model of relationship commitment and stability in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Current Psychology*, 20(4), 312-326.
- Jones, D. N., & Weiser, D. A. (2014). Differential infidelity patterns among the Dark Triad.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7, 20-24.
- Lalasz, C. B., & Weigel, D. J. (2011).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and extradyadic relations: The mediating role of sensation seeking on intentions to engage in sexual infide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7), 1079-1083.
- Lampard, R. (2014). Stated reasons for relationship dissolution in Britain: Marriage and cohabitation compared.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0(3), 315-328.
- McIntyre, J. C., Barlow, F. K., & Hayward, L. E. (2015). Stronger sexual desires only predict bold romantic intentions and reported infidelity when self control is low.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67(3), 178-186.
- Mischel, W. (1977). The interaction of person and situation. In D. Magnusson & N. S. Endler (Eds.), *Personality at the crossroads: Current issues in interactional psychology* (pp. 333-352).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Moller, N. P., & Vossler, A. (2015). Defining infidelity in research and couple counseling: A qualitative study. *Journal of Sex and Marital Therapy*, 41(5), 487-497.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 Ozimek, P., & Förster, J. (2017). The impact of self-regulatory states and traits on Facebook use: Priming materialism and social comparison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1, 418-427.
- Palmer, J. C., Komarraju, M., Carter, M. Z., & Karau, S. J. (2017). Angel on one shoulder: Ca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ark Triad traits and counterproductive work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0, 31-37.
- Park, S. W., & Colvin, C. R. (2015). Narcissism and other derogation in the absence of ego threat. *Journal of Personality*, 83(3), 334-345.
- Patrick, H., Knee, C. R., Canevello, A., & Lonsbary, C. (2007). The role of need fulfillment in relationship functioning and well-being: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3), 434-457.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902.
- Rhoades, G. K., Kamp Dush, C. M., Atkins, D. C., Stanley, S. M., & Markman, H. J. (2011). Breaking up is hard to do: The impact of unmarried relationship dissolution on mental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5(3), 366-374.
- Rusbult, C. E. (1980). Commitment and satisfaction in romantic associations: A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6(2), 172-186.
- Rusbult, C. E., Johnson, D. J., & Morrow, G. D. (1986). Predicting satisfaction and commitment in adult romantic involvements: An assessment of the generalizability of the investment model. *Social Psychology Quarterly*, 49(1)81-89.
- Ryan, K. M., Weikel, K., & Sprechini, G. (2008).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courtship violenc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58(11-12), 802-813.

- Schmitt, D. (2003). Universal sex differences in the desire for sexual variety: Tests from 52 nations, 6 continents and 13 islan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1), 85-104.
- Schramm, D. G. (2006). Individual and social costs of divorce in Utah.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7(1), 133-151.
- Shackelford, T. K., Besser, A., & Goetz, A. T. (2008). Personality, marital satisfaction, and probability of marital infidelity. *Individual Differences Research*, 6(1), 13-25.
- Simpson, J. A. (1990). Influence of attachment styles o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5), 971-980.
- Tanchotsrinon, P., Maneesri, K., & Campbell, W. K. (2007). Narcissism and romantic attraction: Evidence from a collectivistic cultur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1(3), 723-730.
- Thornton, V., & Nagurney, A. (2011). What is infidelity? Perceptions based on biological sex and personality.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4, 51-58.
- Twenge, J. M., Konrath, S., Foster, J. D., Campbell, W. K., & Bushman, B. J. (2008). Egos inflating over time: A cross temporal meta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76(4), 875-902.
- 1 차원고접수 : 2016. 12. 19.
수정원고접수 : 2017. 03. 05.
최종게재결정 : 2017. 03. 29.

Narcissism and Infidelity Inten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A Person × Situation Interaction Approach

Sean S. Kim

Yong Hoe Heo

Sun W. Park

Korea University

We investigated the interactive effect of person and situation on infidelity intention in romantic relationship. In study 1, married individuals ($N = 116$) completed an online survey including a measure of narcissism and were asked to respond to infidelity intention questions after imagining themselves as a protagonist in a hypothetical vignette. The protagonist in the vignette has made a big investment into marriage and encounters an attractive opposite-sex person who showed romantic interests in him/her. Results showed that narcissism was positively related to infidelity intentions, and that men had higher infidelity intentions than women. However, the interaction between sex and narcissism was not significant, indicating that narcissism's effect on infidelity intention was independent of participant sex. In Study 2,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oth person and situation on infidelity intention, as well as the interaction between them. Male students ($N = 143$) who were not involved in a romantic relationship completed a measure of narcissism and responded to infidelity intention questions after reading a similar vignette to study 1. We manipulated the investment size of the protagonist (high vs. low) and quality of the alternative partner (high vs. low) in the vignettes. Participants showed higher infidelity intentions when the investment size was low or when the quality of the alternative was high. Narcissistic individuals showed high infidelity intentions when both investment size and quality of the alternative were high or both of them were low.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important to take both person and situation into account when understanding social behavior.

Keywords : infidelity intention, narcissism, investment model, person × situation interaction